



John 10

요한복음 10
Tape #8078
By Chuck Smith

John chapter 10. As we pointed out this morning, the context goes back to chapter nine. The healing of the man who was born blind and because of that healing indirectly, he was ostracized, ex-communicated from the religion of the day. They had determined that anyone who had declar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would be ex-communicated. Not allowed to worship with the people in the temple or in the synagogue. And when he had this dispute with the Pharisees, it ended in his being ex-communicated. We read that Jesus found him and Jesus asked him the question, “Do you believe on the Son of God [which is the equivalent to the Messiah]? He answered and said, Who is He, Lord, that I might believe on Him? And Jesus said unto him, You have both seen Him, and He is now talking with you. And he said, Lord, I believe. And he worshipped Jesus. And Jesus said, For judgment I am come into the world, that they which see not might see; and they which see might be made blind. Now some of the Pharisees were nearby, they heard what Jesus said, and they said, Are we blind also? Jesus said unto them, If you were blind, you would have no sin: but now you say, You see; therefore your sin remaineth” (9:35-41). 이제 요한복음 10장이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지적하였듯이, 이 장의 내용은 9장의 내용과 이어진다. 나면서부터 소경 된 자의 치유와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그 소경이 당시의 종교 체제로부터 파문을 당한 사건 말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자는 누구나 다 파문을 하리라고 결심하고 있었다. 그런 사람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할 수도 없게 되어 있었다. 그 고침 받은 자가 바리새인들과 벌인 논쟁도 결국은 그가 파문 당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예수께서는 그를 찾아 이렇게 질문 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메시아와 같은 의미이다]을 믿느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너는 그를 보았으니,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바로 그이니라. 그는 ‘주여 제가 믿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심판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 그 때 몇몇 바리새인들이 가까이 있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겠지만, 너희가 스스로 분다고 말을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9:35-41).

So this man was being put out of one fold, that of Judaism; but Jesus is receiving Him into another fold, that of Christianity. And so Jesus said, 그러므로 이 사람은 유대교라는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또 다른 울타리 즉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10:1),

And probably unto the Pharisees in the context of, You say, you see; therefore your sin remains,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문맥으로 보아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듯하다: 너희가 스스로 분다고 말을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니라.”

He that entereth not by the door into the sheepfold, but climbeth up some other way, the same is a thief and a robber (10:1).

Jesus in a moment is going to tell us that He is the door to the sheepfold. If any man doesn't

enter by the door, the same is a thief and a robber. Jesus is now saying that there is only one way by which a person can enter into true fellowship with God. He is not saying that John the Baptist and Isaiah and Jeremiah and David and all were thieves and robbers. He is not condemning those men of God but those false pretenders, false prophets. Those who were pretending to lead people unto God but leading them astray. 잠시 후면 예수께서 자신이 바로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어느 누구든 그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절도요 강도라는 말씀이다. 예수께서는 지금 사람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세레 요한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윗 등 모든 자들이 절도나 강도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분이 정죄하고 있는 대상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잘난 체 하는 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 것처럼 우쭐거렸지만, 실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자들이었다.

By the time that Jesus came on the scene, the religious system of Judaism was pretty well corrupted. The high priest and the family of the high priest were of the sect of the Sadducees which neither believed in angels nor spirits nor resurrection. They were materialists. They had learned how to profit off of people's desire to worship God. They had set up in the temple courts little booths and they controlled the franchises whereby people were sold certified sacrifices. Sacrifices that would immediately and automatically be accepted by the priest because they had the seal of certification. But it costs. They profited handsomely. 예수께서 무대에 등장하실 때쯤 되어서는, 유대교라는 종교 체제가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대체사장과 대체사장 가문은 사두개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천사도 영도 부활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유물론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부터 어떻게 하면 이익을 챙길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성전 마당에다 작은 판매대를 마련해 놓고는 거기서만 사람들이 인증된 희생 제물을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른바 독점적인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인증 마크가 있는 제물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것은 값이 비쌌다. 그로 인해 그들은 상당히 이윤을 남기고 있었다.

They had money changers who would exchange the Roman currency for the temple shekel so that the people could give unto God. But it costs them handsomely to exchange the money for the temple shekel. So they were sort of skimming off the top, enriching themselves, using the religious system for their own personal gain and benefit. When Jesus came into the temple and saw them selling the sacrifices and exchanging the money, He took a whip and He drove them out and He said, "My Father's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to all people,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thieves" (Matthew 21:13). He was referring to the false prophets who supposedly spoke in the name of the Lord. He was referring also to those men who have preceded Him who claimed to be the Messiah. 그들은 환전상들을 고용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로마 화폐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성전 세겔로 바꿔주는 일을 했다. 그런데 성전 세겔로 바꾸는 일 역시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다. 그리하여 저들은 사람들로 부터 알맹이를 빼먹으며 치부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종교적인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저들이 희생 제물을 파는 것과 돈을 바꾸는 모습을 보시고는, 채찍을 만들어 저들을 내어쫓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느니라" (마 21:13). 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체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지목하여 말씀하신 것이었다. 또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자칭 메시아라 하던 사람들을 가리킨 말씀이기도 했다.

In Acts chapter five, Gamaliel speaks of a Theudas who rose up, making claims for Messiahship, gathered about 400 men around him, but when he was put to death the whole thing fell apart. Also he spoke of another Judas of Galilee who also made elaborate claims and how that whole system fell apart. And so counseling them concerning the apostles. He said, "Let them alone. If it's of God, we can't fight it. We'll be fighting against God. If it's not of God, it will just go to pieces like the others" (Acts 5:38,39). Jesus said, Those that came before Me, making the claim to be the Messiah. They were thieves and robbers. Those who were false prophets. Those who were profiteering off of the religion, thieves and robbers. Trying to get into the kingdom some other way than by the door.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말리엘이 드다에 대해 언급한다. 자칭 메시아라 하는 드다가 일어나자 400명 가량이 그를 따랐었는데, 그들은 드다가 죽임을 당하자 모두 흩어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가말리엘은 또한 갈릴리 유다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백성을 꺾어 좇게 하다가 그도 망한족 좇던 사람이 다 흩어진 일이 있었다. 그런 예들을 들면서 가말리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였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 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행 5:38,39). 예수께서는 그분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며, 종교라는 미명 하에 폭리를 취하는 절도요 강도라는 것이다. 문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들이라는 것이었다.

But he that entereth in by the door is the shepherd of the sheep. To him the porter will open; and the sheep will hear his voice: and he calls his own sheep by name, and he leads them out (10:2,3).

We were sharing with you this morning how this is a sheepfold that was in the city. In the evening when the shepherds would come in from the fields with their various flocks, they had sort of a common sheepfold. It was a secure place. It had a gate on it. And the porter would open the gate to the shepherds and their flocks would go in and mingle during the night. 오늘 아침에 우리는 본문의 내용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던 양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저녁에 목자들이 자기 양 떼를 이끌고 들에서 돌아오면, 양들을 일종의 공동(共同) 우리에다 넣었다. 그곳은 안전한 곳으로서 문이 달려 있었다. 문지기가 목자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면 양들이 들어가 하룻밤을 지내곤 하였다.

In the morning, the shepherd would come to get his flock to lead them out to the pastures. And he would call and his flock would respond. The sheep knew the voice of their own shepherd. You could go and stand and call all day and not one of them would follow you. They don't know your voice. But they knew the voice of their shepherd. And so Jesus is. And it would be an interesting thing to go and watch the shepherds stand there and call and all of his sheep just leaving the others coming out and the others just still not paying any attention because they didn't recognize the voice. But when their shepherd came, then you'd see them perk up and they would follow out. So this is the picture that Jesus is giving here.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들을 불러내어 초장으로 가곤 했다. 한 목자가 부르면 그의 양들이 응답했다.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이 가 서서 하루 종일 양들을 불러 보라. 양 한 마리도 여러분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양들이 여러분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의 양들도 그럴 것이라는 말이다. 목자들이 거기 서서 자기 양들을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본다면 흥미진진할 것이다. 다른 양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데, 오직 그의 양들만이 우리 밖으로 나아올 것이다. 다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인지하지 못하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의 목자가 다가오면 다른 양들도 신이 나서 따라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광경에 대한 것이었다.

He is the Shepherd. He comes to the fold, He calls and His sheep hear His voice and they respond. And He leads them out. 예수님은 목자이시다. 그분이 우리로 다가오셔서 부르시면, 그분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것이다. 그러면 그분은 자기 양들을 데리고 나가실 것이다.

And when he puts forth his own sheep, he goes before them, and the sheep follow him: for they know his voice. And a stranger they will not follow, but they will flee from him: for they know not the voice of a stranger. This parable [John tells us] Jesus spoke unto them (10:4-6):

That would be unto the Pharisees and all that were there when He was receiving this blind man into fellowship. Ex-blind man.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소경을, 아니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을 양의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실 때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but they did not understand the things which He spake unto them (10:6).

It was a mystery. They couldn't figure it out. What's He talking about? So Jesus went on to explain. 이 말씀은 신비한 얘기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저가 지금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그 내용을 설명하셨다.

Then said Jesus unto them again,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I am the door of the sheep (10:7).

Now we have another type of sheepfold. This is one that is out on the countryside. In the summer months, as they had to go far for pasture, as the grass of course would be eaten around the area they'd have to go farther and farther to find pasture in the dry summer. So they had out in the wilderness sheepfolds which were just walled in areas. They were protected in the walls from the wild animals and from the wind but there was no door to it, just an opening in this walled enclosure of rocks. And in the evening when the shepherd would bring the sheep to this enclosure, he would hold his staff down low making the sheep come under it to give him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m, to see if there were any briars stuck in their wool, to see if there were any cuts that he might anoint with oil. And once the sheep were brought in, examined and counted, then the shepherd himself would lie across the opening of the enclosure. So he became the door. You could not enter in except you enter in by the shepherd. In the same token, the sheep could not leave. He became the door to the sheepfold. 이제 여기 다른 형태의 양 우리도 있다. 들판에 있는 양 우리다. 여름이 되면 목자들이 목초지를 찾아 다녀야 했다. 주변에 있던 풀들을 물론 다 먹어치웠을 것이므로, 여름 건조기에는 그들이 보다 더 먼 곳으로 나아가 풀밭을 찾아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들판에 양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저 울타리를 대강 두른 것이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양들은 야생 동물이나 비바람을 피했을 것인데, 거기에는 문이 없었다. 돌로 담을 쳐 두른 곳에 열린 구멍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저녁에 양들을 이런 우리로 데리고 돌아온 후, 목자는 지팡이를 낮게 드리운다. 그러면 양들이 지팡이 밑으로 다가와 자기 몸을 보인다. 그러면 목자는 자기 양들이 어디 찢린 데는 없는지,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살펴서 기름을 발라준다. 일단 양들을 안으로 들여 놓고 검사하고 그 수를 세고 하고 나면, 목자는 우리의 그 터진 곳을 가로막아 드리눅는다. 말하자면, 양 우리의 문이 되어버리는 셈이다. 그러면 그 누구도 목자를 건너지 않고는 그 우리로 들어갈 수가 없다. 또한 양들도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우리에서 나갈 수가 없다. 목자가 양 우리의 문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And so He is declaring now, “I am the door of the sheep.” 이런 것을 암시하면서 예수께서는 지금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다: “나는 양의 문이로다.”

All that ever came before me (10:8)

That is, claiming to be the Messiah. 다시 말하면, 와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are thieves and robbers: but the sheep did not hear them. I am the door: by me if any man enter in, he will be saved (10:8,9),*

So you can come into the safety, the security of the sheepfold by Jesus Christ. And of course, talking to this blind man who had been kicked out of the one fold, Jesus is saying, He has come into another fold and there he is safe.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전하고 든든한 양 우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양의 한 우리로부터 추방을 당한 이 소경이 다른 우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안전한 우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he shall go in and come out, and find pasture. The thief [these false claimants] they came to steal, to kill, and to destroy (10:9,10):

There are still those today who lay some kind of Messianic claim upon themselves. In India, there are those men who claim to be God-men. They have passed through an evolutionary transitional state from man into God, the Avatar and they claim to be God. They draw huge followings and they build themselves palatial mansions. They live in the labs of luxury. They drive fleets of Rolls Royces. They are using their position and their power over the people for their own personal gain and enrichment. 오늘날에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다. 인도에는 자신을 신인(神人)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 인간으로부터 신 즉 아바타로 변화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수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며 호화로운 집을 짓고 산다. 궁궐 같은 곳에 거하면서 롤즈 로이스 같은 아주 비싼 차들을 몰고 다닌다. 자신들의 지위와 권세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며 치부하는 사람들이다.

There are those who claim to be the Messiah. Here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one such claimant. He has his followers selling peanuts in parking lots and flowers on the street corners. Making merchandise of the people that he might live a very luxurious lifestyle. But they are all interested in their own personal comfort and in taking advantage of their followers to enrich themselves.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 그의 추종자들은 거리에서 땅콩이나 꽃을 판다. 그렇듯 사람들을 상품으로 만든 그는 매우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 이런 자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할 뿐이며, 추종자들을 이용하여 치부를 하고 있을 뿐이다.

Jesus said, “They are thieves and robbers,” and “the thief comes not but for to steal, to kill and to destroy.” Not really interested in the flock of God. Wants to steal from them. Kill them if necessary. Sell the meat and destroy. But Jesus, in contrast, said, “I am the door, I am the good shepherd.”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절도요 강도”라고 하시며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양 무리에게 진실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양들을 벗겨 먹고, 필요한 경우 죽이며, 그 고기를 팔기도 하는 등 양들을 파멸시킨다는 말이다. 그에 비해, 예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이다”라고 말씀하신다.

I have come that they might have life, and that they might have it more abundantly (10:10).

Jesus came to give, not to take. The true servant of Jesus Christ will give, rather than take. He will minister rather than being ministered to as he follows the example of his Lord. He’s more

interested in the welfare of the flock of God than he is his own welfare. You will not find him begging the people for funds but he will just trust the Lord to provide for the things that God desires to do. Jesus came to give you life. 예수께서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은 주려고 하지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의 모범을 좇아 섬기려고 하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양 무리의 복리에 관심이 있지 자기의 유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그는 기금을 모으기 위해 사람들에게 구걸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리라고 단순하게 믿을 것이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I've often said that people have such a wrong concept of Christianity. And perhaps for good reason. Because of some of the false prophets. Jesus came that you might have life on the highest plain. He did not come to take from you. He came to give to you and to bring you to life on the highest plain. Take life at its best, add whipped cream, chopped nuts and a cherry and you've got Christianity. He's the whipped cream. He's just that added touch. It's life plus, more abundantly. 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종종 보아 왔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몇몇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평탄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분은 우리로부터 뭔가를 취하려 오신 게 아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극히 복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가장 잘 나가는 인생을 취하여 거기다가 아이스크림을 바르고 땅콩이나 체리를 가미해 보라. 그러면 기독교가 얻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거품이 이는 크림이시다. 그분은 향미를 더해주시는 분이시다. 삶이 풍성해지고 또 더 풍성해지도록 해 주시는 분이시다.

I a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gives his life for the sheep (10:11).

I didn't come to kill. I came to give My life for the sheep. 나는 죽이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려고 왔다.

But he that is a hireling, and not the shepherd, whose own the sheep are not, he seeth the wolf coming, and he leaves the sheep, and flees: and the wolf catches them, and scatters the sheep. The hireling flees, because he is a hireling, and he doesn't care for the sheep (10:12,13).

Those who have their own interests. They really don't care for the sheep. They're hirelings. When danger comes, they'll flee. They'll forsake the flock. Why? Because it's not their flock and they really don't care for it, all they care is the wages that they can get from keeping the flock. Jesus said, 저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양들에게는 원래 관심이 없다. 저들은 샅꾼들이기 때문이다. 위험이 다가오면 그들은 도망갈 것이다. 그들은 양들을 포기해버릴 것이다. 왜 그런가? 양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며 양들에게는 진실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신경을 쓰는 대상은 양들을 쳐서 얻게 되는 샅일 뿐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I am the good shepherd [again He repeats it], and I know my sheep, and am known of mine. As the Father knoweth me, even so know I the Father: and I will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10:14,15).

Later on in the fifteenth chapter, Jesus will say, "Greater love has no man than this, that a man will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John 15:13). He is saying here, "I will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It's a prophecy because in six months, within six months, He will actually lay down His life for the sheep. And then Jesus said, 나중에 15장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15:13).

본문에서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의 예언이었다. 왜냐하면 6개월쯤 후에 예수님은 진짜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이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Other sheep I have, which are not of this fold (10:16):

He's talking about you. In the seventeenth chapter of John as He is praying for His disciples, He prays that God will not only bless them but all who will come to believe in Me through their word. So that includes us, we who have come to a faith in Jesus Christ through the reading of the Gospels, the New Testament. The prayer of Christ is all inclusive. It includes us. 여기서의 예수님 말씀은 우리들에 대한 언급이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들 뿐만 아니라 장차 저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을 비셨다. 그러므로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란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니, 신약의 복음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기도에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된다.

When Paul is writing to the Ephesians in chapter two, he talks about how Jesus has broken down the wall that once existed between the Jew and the Gentile. That wall that had been built up to exclude the Gentile from salvation. That wall of separation that kept you outside. But he talks about how Jesus has broken down the wall and made us all one. And here Jesus is declaring that. “I have other sheep, they're not of this fold.”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담을 예수께서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해 기술한다. 그 담은 이방인들을 구원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쳐진 것이었다. 말하자면, 분리와 격리의 담이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담을 허시고 우리를 모두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신 예수님의 선언도 그런 사실에 대한 언급이었다.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them also I must bring, and they shall hear my voice; and there shall be one fold, and one shepherd (10:16).

And so as Paul lays this out to the Ephesians, how that the church is one and we Gentiles who were once “without hope, and without God in this world: have been brought nigh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Ephesians 2:12,13). We've been made partakers of the promises of God and of the covenants. We've been brought into this covenant relationship with God. 바울은 이 내용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동안,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었는지에 대해 말한다. 이방인들이 즉,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던” (엡 2:12,13)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한다. 어떻게 하나님과 이 언약적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So then He goes on to declare, “For there is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Ephesians 4:4,5), and so the Lord has made of the two one. He has brought us together so that we are all of the one fold Jesus the Chief Shepherd, Jesus the Good Shepherd and has brought us Gentiles into the fold of God. How glorious that is. 그런 다음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한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며” (엡 4:5), 따라서 주님은 그 둘(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느니라. 그분은 우리를 하나로 묶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한 우리에게 들게 하셨으며, 목자장 되시는 예수 즉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던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인가.

And He said,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Therefore doth my Father love me, because I lay down my life, that I might take it again (10:17).

The laying down of His life was an act of submission to the Father. As Paul told the Philippians, “Though He was in the form of God, and thought it not something to be grasped to be equal with God: Yet He emptied Himself, took upon himself the form of man, and He came in the likeness of men as a servant: and was obedient unto death, even the death of the cross. Wherefore God has also highly exalted Him, given Him a name above all names: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all bow; And every tongue shall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Philippians 2:6-11). So the emptying of Jesus and then the exalting of Jesus by the Father because of His obedience, submission to the will of the Father. 그분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아버지께 복종하는 한 행위였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한 말 그대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6-11). 예수께서 자신을 비우시자,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높이셨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으며,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이다.

In the garden He prayed, “Father, if it’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nevertheless not what I will, Thy will be done” (Matthew 26:39). And one occasion God said,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Matthew 3:17).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 3:17).

He speaks about His Father’s love for Him. “My Father loves Me, because I lay down My life, that I might take it again.” Here should settle an age-old issue as to who crucified Jesus. There has been sharp tension between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the Jews because both of them seek to lay upon the other the blame for the crucifixion of Jesus. The Roman Catholic church has persecuted the Jews. They called them Christ killers.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언급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여기서 우리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에 대한 해묵은 논쟁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유대교 사이에서는 깊은 긴장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데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기 때문이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을 예수 살해자들이라고 불렀다.

I was talking with a friend in Israel who was saying that as he grew up in South America, everyday he had to run home from school because the boys would throw rocks at him. He said the Christian boys would throw rocks at me, calling me a Christ killer. And he said, So that was my introduction to Christianity. 내게는 이스라엘 출신의 친구 한 사람이 있다. 그는 미국 남부에서 자랐는데, 학창 시절 학교가 파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야만 했다고 한다. 친구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며 예수 죽인 사람이라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기독교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고 그는 술회했다.

But the Jews said it was the Romans, clearly the Romans who crucified Him. It was under the edict of the Roman court and the Roman soldiers were the ones that did it. And so the argument goes on and on, each trying to throw the blame on the other. But they’re both wrong. 한편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인들, 분명히 로마인들이었다고 주장한다. 로마 법정의 판결에 의해 로마 군사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진행되어 내려오는 동안, 서로 상대방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곤 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모두 그릇된 것이었다.

Jesus said,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No man takes my life from me, but I lay it down of myself (10:18).

So it isn't the Jew who is to blame; it's not the Roman soldiers who are to blame. In a sense you might say, It is God who is to blame. "For God so loved the world," including you and me,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John 3:16). It was my sin that took Him to the cross. I am the guilty one. He died for me. I'm so glad He did. But He said that He did it, He laid it down Himself. "No man takes it from Me, I lay it down of Myself." 이는 유대인 책임도 아니고, 로마 군사들 책임도 아니라는 말씀이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탓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 여러분과 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요 3:16) 때문이다.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도록 한 것은 바로 나의 죄이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We remember when Jesus was hanging on the cross and because it was the day of the preparation for the sabbath, the next day was the special sabbath of that holiday, the beginning of the unleavened bread, and so they didn't want the bodies to be hanging on the tree on the sabbath day which began at sundown. So they came to Pilate. They asked permission to break the legs of those that were hanging on the cross, Jesus and the other two, to break their legs in order to hasten the death. And they were granted permission. And so they came and they broke the legs of the two thieves. But when they came to Jesus, they found that He was already dead so they did not break His leg but the soldier just put his spear through His side into His heart and there came forth blood and water. But you remember as Jesus was hanging on the cross, He said, "Father, into Thy hands I commend My spirit:" And then it says, "He bowed His head and dismissed His Spirit" (Luke 23:46).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때를 기억한다. 그 날은 안식일의 예비일이었고, 다음 날은 특별한 안식일 즉 무교절이 시작되는 휴일이었다. 저들은 일몰과 함께 시작되는 안식일에는 나무 위에 매단 시신을 그대로 두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빌라도에게 갔다. 십자가에 달린 자들(예수와 다른 두 사람)의 다리를 꺾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하기 위해서였다. 다리를 꺾어 저들의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에게 허락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두 도적의 다리를 꺾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다가갔을 때는 그분이 이미 죽어 있었다. 따라서 군사들은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심장까지 관통하게 하였다. 그러자 물과 피가 터져 나왔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분은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셨다" (눅 23:46).

No man, He said, takes My life from Me, I give My life. 그분은 내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I have the power to lay it down, I have the power to take it up again (10:18).

And He proved He had the power to lay it down. As He bowed His head, He dismissed His spirit. He said, Okay, you can go now. I have the power to do that. He also said He had the power to take it up again. And on the third day He did that. He rose from the dead. So "no man takes my life

from Me, I lay it down of Myself. I have the power to lay it down, I have the power to take it again.” 예수님은 자기가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음을 입증하셨다. 그분이 고개를 숙이시자, 그분의 영은 떠나버렸다. 그분이 자기 영에게 이제 되었으니 너는 떠나도 된다 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다.” 그분은 그 목숨을 다시 취할 권세가 있다고도 말씀하셨다. 제 삼일에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This commandment I have received of my Father. There was a division again among the Jews because of these sayings. And many of them said, He has a devil; why do you listen to him? He's crazy. Others said, These are not the words of him that hath a devil. Can a devil open the eyes of the blind (10:18-21)?

They're faced with this miracle. They can't give an explanation for it. Obvious miracle. A man born blind is now there, he sees. And so it creates the division. 저들은 이 기적을 어떻게 처리할 지 몰랐다. 그것에 대해 해석을 내릴 수가 없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보게 되었으니 분명히 기적은 기적이었다. 그런데, 그 기적으로 인해 분란이 생기게 되었다.

Now some two months later or so. You see, this all took place around the time of the feast of the tabernacles which takes place in October. On December the twenty-fifth, they have the feast of dedication, also called the feast of light, and today known as Hanukkah. And so John jumps over a couple of months of the life of Jesus without any comment and we are back again in Jerusalem some two and a half months later at the feast of dedication. This is one of the feasts of the Jews that does not appear in the Mosaic law. It is not one of the required feasts for them to be in Jerusalem. They can observe the feast of dedication anywhere. And it is the feast by which they were commemorating the rededication of the temple after it had been profaned by the Syrian ruler, Antiochus Epiphanes. 이는 대략 2개월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일 모두는 10월에 있게 되는 초막절 때 일어난 사건이었다. 12월 25일에는 빛의 절이라 불리는 수전절이 있었다. 오늘날 하누카라 불리는 절기였다. 그러므로 요한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예수 생애 중 서너 개월을 건너뛴 셈이다. 2.5개월이 지난 뒤 수전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이다. 이 절기는 모세의 율법에는 나오지 않는 유대인의 축제 중 하나였다.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지켜야 하는 절기는 아니었다. 수전절은 어디서나 지킬 수 있었다. 이것은 시리아의 통치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유린한 뒤 이뤄진 성전 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다.

He in cold and callous disregard for the Jews put the image of Jupiter in their temple in the holy of holies. He offered a pig as a sacrifice upon the altar of God. He profaned the temple of God. There was a family, the Maccabees. And Judas Maccabias, one of the boys, led a rebellion against the rule of Syria and they overthrew the Syrians. Drove them out. And they decided to rededicate the temple to cleanse it from the impurities of Antiochus Epiphanes. And so they had the feast of dedication that followed year after year to celebrate the dedication once again of the temple and the cleansing of the profaning of the temple under this Syrian ruler.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을 전혀 무시해 버린 채 제우스 신상을 성전의 지성소에다 갖다 놓았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제단에다 돼지를 제물로 바쳤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다. 그런데 한 가문이 나타났으니 곧 마카비 족속이었다.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소년이 주도하여 시리아에게 반기를 들고 시리아인들을 타도했던 것이다. 그들을 내어쫓은 것이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한 후,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저지른 부정으로부터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로 다짐하였다. 그리하여 매년 수전절을 지키며, 성전을 재차 봉헌하는 한편, 그 시리아 통치자가 더럽힌 성전을 청결케 한 것을 기념하곤 했다.

So Jesus was at Jerusalem, and [John tells us] it was winter (10:22).

That feast does take place right at wintertime, December twenty-fifth. 이 절기는 겨울에 즉 12월 25일에 지켜졌다.

And Jesus walked in the temple in Solomon's porch (10:23).

This was a large colonnaded porch of the temple. It was on this porch that Peter healed the lame man and the crowd assembled and Peter preached to them and several thousand were converted. So a large area. And Jesus, as He was there on Solomon's porch, 이 행각은 큰 기둥으로 둘러싼 성전 현관을 말한다. 절름발이가 고쳐졌을 때 모여든 군중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곳도 바로 여기였다. 그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회심했다. 그만큼 이것은 넓은 곳이었다. 이 때 예수님은 이 솔로몬 행각 위에 계셨다.

There came the Jews round about him (10:24),

That is, they encircled Him. They hemmed Him in. They cornered Him. 다시 말하면, 저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포위해 들어온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댔다.

and they said unto him, How long do You make us doubt (10:24)?

Or, do you leave us in this question. 언제까지 우리를 이런 의문 속에 가두어두려 합니까? 라는 뜻이다.

If You are the Christ, tell us plainly (10:24).

How long do you leave us just hanging? Make Your claim. He did and they picked up stones to kill Him. 언제까지 우리를 어리벙벙하게 하려고 합니까? 당신의 주장을 밝히시오. 그분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다. 그랬더니 저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지 않았던가?

But He said unto them, I told you, and you did not believe Me: the works that I do in my Father's name, they bear witness of me (10:25).

The works that I've done, they answer your question. Now there were those who recognized that Nicodemus when he came to Him said, "No man can do the works that You do, unless God is with Him" (John 3:2). In the fourteenth chapter when Jesus is talking to His disciples, "Philip saith unto Him, Lord, just show us the Father, and it sufficeth us. And Jesus said, Have I been so long a time with you, Philip, haven't you seen Me? he that hath seen Me hath seen the Father; how is it that you say, Show us the Father? Believ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 or else believe Me for the very works' sake" (John 14:8-11). So again He calls upon the works that He does as the evidence. Not just laying claim. Not just saying, Yes, I am the Messiah. Anybody can say that. 내가 행한 일, 그것이 너희의 질문에 대해 답을 줄 것이니라. 이런 사실을 인식한 사람도 있기는 했다. 니고데모란 사람은 예수께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요 3:2).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 14:8-11).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 자신의 행위를 증인으로 채택하셨던 것이다. 단순히 주장하거나 말만 하신 게 아니었다.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분은 자신의 주장을 행위로 증명해보이셨다.

As when the man with the palsy was let down there in the house and they removed the roof and let the man down, and Jesus said, Your sins be forgiven. And there was a real hubbub by the Pharisees when they heard that. And Jesus said, What's harder to say, Your sins are forgiven; or, Rise, take up your cot and go? But that you might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power on earth to forgive sins, (He turned to the man with palsy and said), Take up your cot and go home. And the man took up his cot and walked out the door (Matthew 9:2-7).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을 때 예수님은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그 소리를 듣자 바리새인들은 소란을 피웠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고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명령하나니, (중풍병자를 향하여)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마 9:2-7).

The works bore witness that He had the power to say, Thy sins are forgiven. When they said, No man can forgive sins but God. That's blasphemy. What's He saying, Your sins are forgiven, that's blasphemy. Jesus is proving that He has the power. No man can forgive sins but God. He's proving that He has the power to forgive sins, proving that He is God. And so He calls now again upon His works. 내 행위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증거 할 것이다.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어. 저건 불경한 행동이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말하다니, 저건 참람한 말이야'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증명해 보이신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그분은 자신의 행위를 증인으로 채택하신 것이다.

You want to know if I am the Messiah? The works. I told you but you didn't believe Me, so the works that I do, they bear witness of Me. 너희는 내가 메시아인지 알고 싶으냐? 내 행위를 보라.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가 한 일을 보라. 그것이 나에 대해서 증거 할 것이다.

But you believe not, because you are not of my sheep, as I said unto you (10:26).

Interesting verse. The reason why you don't believe, because you're not My sheep, as I said to you. There's a fascinating verse in the book of Acts that talks about an invitation that was given and it says, "And as many as were ordained to eternal life believed" (Acts 13:48). When we start getting into the subject of predestination and fore-ordination and all, I believe we are trampling in areas that our human brains are not capable of really filtering out and coming to a complete understanding. And I think those who dogmatically claim to know the most, know the least. 흥미 있는 구절이다: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은 복음으로의 초청에 대해 말하면서 멋진 기록을 남기고 있다: "영생을 얻게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행 13:48). 우리가 예정설이나 미리 작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 할 때, 우리는 인간의 두뇌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교리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장 적게 아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또한 생각한다.

The Bible clearly declares that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John 3:16). The invitation

was to all to “come and drink of the water of life freely” (Revelation 22:17). And yet, there are those that are of the fold, His sheep; and those that are not. And they did not believe because they were not His sheep. I don’t understand it. I openly and honestly confess to you I don’t understand it. There are always those who are trying to get you on one side of the fence or the other. To get you to commit. I drive them crazy because I’m not committed on this.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 22:17)는 초청장이 발부되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든 양 즉 그분의 양인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분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솔직히 여러분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데, 나는 저들의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를 우리 한쪽 끝으로 몰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 그들은 우리로 범죄 하게 하려는 자들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그들은 신경질이 나서 미치려 한다.

I believe that the Bible teaches the sovereignty of God, divine election and predestination. But I also believe that the Bible teaches the free moral agency of man. How that man is a self determinate being, made in the image of God. And how that we can choose and God offers us the choice and that God is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but that all should come to repentance” (2 Peter 3:9). How to reconcile it? I can’t. Maybe you’re smarter than I. I wouldn’t question that and I wouldn’t challenge that. But I’ll just stay blissful in my ignorance and you can fight.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친다고 믿는다. 신이 예정하시고 신이 선택하신다는 교리를 가르친다고 믿는다. 나는 성경이 인간의 자유로운 도덕적 기능에 대해서도 가르친다고 믿는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 결단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지에 대해 가르친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가르친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벧후 3:9)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조화시킬 수 있겠는가? 나는 할 수가 없다. 여러분은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겠으며 내용들을 조화시키려고 도전하지도 않겠다. 다만 나는 나의 무지 안에 거하며 기쁨을 만끽할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행하라.

My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10:27):

I’m glad that I’m one of His sheep. That’s all I can say. I have heard His voice, I follow Him. 나는 그분의 양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게 전부이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니 그분을 따를 것이다.

And I give unto them eternal life; and they shall never perish (10:28),

What a glorious promise! And I revel in it, I rejoice in it.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인가! 나는 이 약속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neither shall any man pluck them out of my hand (10:28).

Paul the apostle in the eighth chapter of Roman, the latter part, asked a series of questions that I absolutely enjoy every time I read them and contemplate and meditate upon them. Paul said, “If God be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Romans 8:31)? That’s a great one to meditate on. First of all, to know that God is for you. If God is for me, then just who can be against me? As Martin Luther said, The prince of darkness grim, we tremble not at him. One little word will fell him. “If God be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후반에서 일련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읽고 명상하며 묵상할 때마다 엄청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에게 대적할 수 있으리요”(롬 8:31)? 참으로 명상하기 좋은 구절이다.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감히 누가 우리에게 대항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마틴 루터의 말처럼, 어두움의 사자가 입을 벌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보고 두려워 떨지 않을 것이다. 단 한 마디의 말씀이면 그를 쓰러뜨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에게 대적할 수 있으리요?”

And, “Who is he that condemneth? It is Christ who has died, yea rather, that is risen again, who is even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making intercession” (Romans 8:34). Who shall lay anything to the charge of God’s elect? It is God who has justified. 그러니 우리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 8:34). 하나님의 선민을 감히 누가 고소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고 하신 이들을 감히 누가 고소할 수 있겠는가?

And then,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I love that one. “For I am persuaded, that neither life, nor death, principalities, or powers, things present, things to come, nor any other created being, is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Romans 8:35,38,39). I love that. Jesus said, “No man will pluck them out of my hand.” 그러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롬 8:35)? 나는 이 구절을 좋아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8,39). 이 구절도 나는 좋아한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My Father, which gave them to me, is greater than all (10:29);

Principalities, powers, anything else.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다.

and no man is able to pluck them out of my Father's hand. I and my Father are one (10:29,30).

Are you the Messiah? Tell us plainly. He goes one step further. He said, “I and the Father are one.” Substance, We are one. ‘네가 메시아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Then the Jews took up stones again to stone him (10:31).

Alright, You told us plainly. We got the message. I think almost a humorous way, ‘옳다. 네가 이제야 분명하게 말을 했구나. 우리가 네 말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 들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해학 수준에 가깝다고 본다.

Jesus said to them, I have done many good works from my Father; for which of these works are you going to stone me (10:32)?

He had healed the lame man at the pool of Bethesda. He had now opened the eyes of a blind man. For which of the works are you going to stone me? 나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절름발이를 고쳐주었다. 나는 방금 한 소경의 눈도 열어주었다. 이것들 중 어느 일 때문에 너희는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They answered him, saying, For good works we don't stone you; but for blasphemy; because thou, being a man, continually make yourself God (10:33).

They were there. They clearly understood the claims that Jesus was making, even though the Jehovah Witnesses don't understand what Jesus was saying to the present day. Jesus was saying He

was God. He was saying, I and the Father are one. He was continually avowing the fact that He was God. And for this they were ready to stone Him. 거기 서 있던 자들은 예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날까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분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공언하셨다. 그것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것이다.

Jesus answered them, Is it not written in your law (10:34),

Notice, this is, I find it quite interesting, that “I said.” In other words, Jesus is saying, I authored the law. They always thought the law came from Moses. Jesus said, “Isn’t it written in your law that,” 나는 이것이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주목해 보라.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의 창시자 라는 의미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모세로부터 왔다고 항상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고) “너희 율법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고 반문하셨다.

I said, that You are gods (10:34)?

“I and the Father are one.” That’s pretty brave statement with the guys having stones in their hands. To claim to be the Author of the law. So often at this point, people will point you to Psalm 82:6. But Psalm 82:6 is not the law. It’s the psalms. Jesus is saying that He said it in the law that they were gods.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것은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한 말 치고는 참으로 담대한 말씀이다. 자신을 율법의 창시자로 주장하다니 말이다. 종종 사람들은 이 구절이 시편 82:6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시편 82:6은 율법이 아니라 단순한 시이다. 여기서의 예수님 말씀은 이런 의미이다: 내가 율법에서 말하기를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니라.

Incidentally, the Mormons pick up on this as a proof text that if they are faithful to the Mormon church and their marriages are sealed within the temple, that they will be gods, they will ascend into the next state of godhood and will be able to go to their own private little planet and begin a race of people and the family is forever and they can have their own celestial family on some planet someplace. This is their proof text. Jesus declaring that “Ye are gods.” 부차적인 얘기지만, 몰몬교도들은 이 구절을 들어 자기네 교리의 근간을 삼고 있다. 만일 사람들이 몰몬교회에 대해 성심을 다하고 그들의 결혼이 성전 안에서 인침을 받는다면, 그들은 신이 될 것이며 신격(神格)의 다음 단계로 올라갈 것이라고 그 교도들은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만의 작은 행성으로 가서 영원히 한 족속과 가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어떤 행성의 어느 곳에선가 그들만의 천국 가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모든 주장이 본문의 구절을 그 근간으로 삼고 있다. 예수께서 “너희는 신들이니라”고 선언하신 내용 말이다.

Now in turning, first of all, let’s turn to Psalm 82 and see what the psalmist says. But we need to see it in the context. Just don’t start with the sixth verse, start with the first verse. “God standeth in the congregation of the mighty; and He judgeth among the gods. How long [He said] will you judge unjustly, and accept the persons of the wicked?” And now, speaking to the judges or to the gods, He said, “Defend the poor and the fatherless: do justice to the afflicted and the needy. Deliver the poor and the needy: rid them out of the hand of the wicked. They know not, neither will they understand; they walk on in darkness: all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are out of course. I have said, Ye are gods; and all of you are the children of the most High” (Psalm 82:1-6).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선 우리는 시편 82편을 살피면서 이 시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맥에 비춰서 이 시편을 고찰해야 한다. 6절부터 보지 말고 1절부터 읽도록 하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낮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데도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시 82:1-6).

Notice here again He said, “I have said.” So this is a quotation, “I have said that ye are gods.” That’s a quotation. So Jesus is saying, “Did I not say in the law?” So where in the law did He say that ye are gods? You have to go back to Exodus chapter twenty-one and chapter twenty-two. And here is where it doesn’t really become obvious in our King James bibles but in the Hebrew, it is there. 여기서 다시 살펴보자. 예수께서는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하셨으므로, 이것은 이미 말한 내용을 인용한다는 얘기다. 인용하면서 얘기를 전개해 나가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율법에서 말했지 않았느냐?”라는 의미이다. 율법 어디에서 너희는 신들이리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21장과 22장으로 가 봐야 한다. 흠정역 성경에서는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뜻이 분명하다.

Chapter twenty-one, first of all, verse twenty-two. Here God is laying out the law and the judgment that is to be meted out in certain cases. If this should happen, then this is the judgment. And so He is instructing the judges concerning the law and the penalties that are to be evoked for certain crimes. In verse twenty-two, “If men strive, and hurt a woman who has a child [who’s pregnant], so that the child departs from her [the child is aborted], and yet no mischief follow: he shall surely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woman's husband will lay upon him; and he shall pay as the judges determine.” The word “judges” there, interestingly enough, is the Hebrew word, “Elohim”, which is gods, plural. So “he shall pay whatever the gods determine.” The judges were called gods, small “G”, plural, because they had the power of life and death over people or they had power of people’s destiny who were brought before their courts. 우선적으로 21장 22절을 살펴보자. 여기서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시며 몇몇 경우에 관시할 판례를 열거하신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판결은 이러하니라 는 식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재판장들에게 율법을 교육하시며 몇몇 범죄에 적용할 형벌을 가르치고 계셨다. 22절의 내용은 이렇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여기서 사용된 “재판장”이란 용어는, 아주 흥미롭게도, 히브리어에서는 복수형 ‘신들’을 가리키는 “엘로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벌금을 내되 신들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는 뜻이 된다. 재판장들은 ‘신들’로 불렸는데, 이는 복수형이면서 소문자로 시작되는 ‘신(god)들’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재판정에 선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며, 저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As God has the power over us, life or death, or power concerning our destiny, these men were to act in God’s stead. They were to see that God’s law was fulfilled and so the judges were called “Elohim,” gods. And you have it then in chapter twenty-two, beginning with verse eight, “If the thief is not found, then the master of the house shall be brought to the judges [again in Hebrew “Elohim” or gods], to see whether he has put to his hand unto his neighbour's goods. For all manner of trespass, whether it is for an ox, or a donkey, or sheep, for raiment, or for any manner of lost thing, which another challenges to be his, the cause of both parties shall come before the [Elohim] judges [or gods]; and whom the judges [or gods] shall condemn, he shall pay double unto his neighbour” (Exodus 22:8,9). So the word there is “Elohim” or gods, that’s where in the law Jesus

said, “ye are gods,” referring to the judges who had the power over a person’s destiny really because they were determining the innocence or the guilt and the punishment that should be meted out for the guilty. So there it is. Next time you’re talking to a Mormon and they bring that up, you can take them back and show what Jesus was talking about.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를 지배하시며 운명을 좌우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마찬가지로, 재판장들도 하나님의 위치에서 행동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도록 할 의무가 있기에, 그들을 “엘로힘” 즉 신들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다음으로 22장 8절부터 읽으면 이렇다: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은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기서도 재판장은 신들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는 신들이다”라고 율법에서 말씀하신 게 된다. 재판장들은 사람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무죄와 유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어떤 죄인에게 내릴 형벌을 결정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신들이라는 것이다. 다음 번에 여러분이 몰몬교도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거든, 이 얘기를 꺼내 보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소개하며 그들을 한 번 설복시켜 보라.

If he called them gods, unto whom the word of God came (10:35),

These are the judges, to whom God’s edicts for certain crimes were given.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재판장들을 가리킨다. 그들에게는 어떤 죄에 대해 하나님의 판결이 주어졌 있었다.

and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10:35);

Interesting passage.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God is not a man, that He should lie; nor the Son of man, that He should repent: hath He not spoken, and shall He not make it good” (Numbers 23:19)? That comforts me.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God will stand by His word. He’ll honor His word above His name. 흥미 있는 구절이다. “성경은 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 23:19)? 이 말씀은 나에게 위안이 된다. “성경은 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기필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말씀을 시행하실 것이다.

Do you say of him, whom the Father hath sanctified, and sent into the world, That You blaspheme; because I said, I am the Son of God (10:36)?

Why are you going to stone Me? for what good work? Not for your good works but for blasphemy; because You being a man are making Yourself God. So Jesus is again sort of showing them their own scriptures. And He said that, Are you going to accuse Me of blasphemy because I said I am the Son of God? The One who the Father has sanctified and sent into the world. He said, ‘너희는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한 선행 중에 어떤 일로 인하여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너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너의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읽는 성경을 다시 가르쳐 주셨다.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으로 인해 너희는 나를 참람하다 하려느냐?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이를 참람하다 하려느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If I do not the works of my Father, then don’t believe me (10:37).

If I haven't done the works, then don't believe Me. 내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나를 믿지 말라.

But if I do, though you don't believe me, believe the works: that you may know, and believe, that the Father is in me, and I am in him (10:38).

Let the works again bear witness. As He said to Philip, "Believe M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 or else believe Me for the very works' sake." He called upon His works, His miracles, as a proof that He was the Son of God. 예수님은 다시 한 번 행위를 불러 증인을 삼고자 하셨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를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분은 자신의 행위를, 자신이 행하신 기적을 불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삼고자 하셨다.

On the day of Pentecost, when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 church and many Jews from all over the world who were there for the feast of Pentecost gathered because of the phenomena that accompanied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when Peter stood up in the midst and began to address the people: "You men of Israel, hearken unto me: For these people are not drunken, as you suppose, it's only nine o'clock in the morning. But this is that which was spoken by the prophet Joel; when he said, in the last days, saith the Lord, I will pour out my Spirit upon all flesh: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young men shall see visions, your old men shall dream dreams: And upon my servants and handmaidens will I pour out of my Spirit in that day, saith the Lord; and there shall be blood, and fire, vapour of smoke: moon turned into blood, sun into darkness, before the great and notable day of the Lord come: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whosoever shall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Now let me speak to you, he said, concerning Jesus of Nazareth, who was approved of God by the signs and the wonders that He did in your midst" (Acts 2:14-22). More literally from the Greek, Who was proved to be of God. So Peter is there again using the same witness, the works of Jesus proved that He was of God. Proved to be of God by the signs and the wonders that He did in the midst of you. So here again once more, Jesus is calling upon the works as the witness that He was from God, that He was in harmony with God in the works that what the Father was doing is what He was doing, manifesting the works of the Father among them because He and the Father were one together. 오순절 날 성령이 교회 위에 임하였으며, 오순절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세계 각처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에게 임했다. 그들은 성령의 강림에 수반되는 현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이었다. 그 때 베드로가 군중 가운데서 일어서서 설교하기 시작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행 2:14-22). 보다 희랍어어 가깝게 번역하면, '하나님으로 증명되었느니라' 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동일한 증인을 내세웠던 것이니, 즉 예수의 행위를 들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던 것이다.

그분은 너희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이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증명되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자기의 행위를 들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거 하셨으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그분과 하나님은 서로 하나가 되셨던 것이다.

Therefore they sought again to take him (10:39):

He is again making it clear and so once more they attempt to take Him. 예수께서 다시 한 번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시니, 사람들은 그분을 또 다시 붙들려고 하였다.

but he escaped out of their hands (10:39),

because His hour was not yet come. Got a couple more months before the hour comes. 아직 그분의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뒤 달은 더 지나야 그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And He went away again beyond Jordan into the place where John at first baptized (10:40); Down near Jericho. 그분은 다시 요단을 건너, 처음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내려가셨으니 곧 여리고 근처였다.

and there He stayed (10:40).

Leaving now the place of hostility, Jerusalem, going back to the area of the Jordan where He will remain until called by Mary and Martha to come quickly because of the serious illness of their brother, Lazarus. 적대감이 서려 있는 곳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그분은 요단 지역으로 다시 가셨다. 그리고는 훗날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의 남동생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렸으니 속히 와 주소서 라고 청할 때까지 거기서 머무셨다.

But many resorted unto him, and said, John did no miracle: and all things that John spake of this man were true (10:41).

John said there is one that is coming after me who is mightier than I am, whose sandal latchet I'm not worthy to untie.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fire. John said of Him, Behold the lamb of God who will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And so the people are saying, John didn't do any miracles. And yet we accepted him as a prophet. Everything that John said of this man is true. 요한은 나 뒤에 나보다 더 강력하신 한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 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 말했다. 사람들은 요한이 아무런 기적도 행한 바가 없다 고 말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요한을 선지자로 받아들인다. 요한이 그분에 대해 말한 것은 모두 참이었기 때문이다.

And so many did believe on him there by the Jordan river (10:42).

Where He will stay until His final journey to Jerusalem. We have Him coming back to Jerusalem at the call of Mary and Martha.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행을 하실 때까지 요단 강가에 머무셨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청할 때에야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되실 것이다.

I love that eleventh chapter. Get into it. Study it. You'll really enjoy it. It's got a lot of fascinating interest for us. So I encourage you to really study it this week and next Sunday night, continue on going into the eleventh chapter of John's gospel. 나는 제11장을 좋아한다. 성경에 몰입하여 11장을 공부해 보라. 여러분도 진짜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흥미진진한 탐험여행을 해 왔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이 주간과 다음 주일 밤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동안 11장을 깊이 탐구하도록 하라.

And now may the Lord be with you. May His hand be upon you to guide and to direct you this week in His path. May the Spirit of God just assure your hearts of your place in Christ, knowing

that He is the door and we have entered in by Him. And there sheltered and protected by Him, He will watch over us, He will keep us. He will see that no harm comes to His sheep for He loves His sheep. He knows His sheep. I'm so glad that I'm one of the flock of God. May the Lord just enrich your walk in Christ. May He fill your mind and heart with an understanding of His truth. And may you continue to grow in grace and in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이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의 손을 얹으셔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셔서 그분의 길로 가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은 문이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양의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이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며, 돌봐주실 것이며, 보호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양을 사랑하시므로 그 어느 누구도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양을 압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양 무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행보를 풍요롭게 하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을 그분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채우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을 아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